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감사파트너 경력과 교육배경을 중심으로

박혜영* · 전규안**

〈요 약〉

최근 규제기관은 감사파트너가 감사업무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사파트너의 개인적 특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 관계에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파트너의 실명이 공시되고,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 자료가 수집 가능한 중국의 A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이용하여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전공, 명문대 여부, 학력) 차이에 따라 이 관계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파트너의 감사대상 기업 수로 측정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기관의 우려대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저해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게 되면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조절 효과가 없었다. 셋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극단적이 아닌 경우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많으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었다. 넷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극단적이 아닌 경우 감사파트너의 교육배경이 좋을수록(회계·재무·경영관리 전공이거나 명문대 출신인 경우)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와 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감독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회계법인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감사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적절히 분포되도록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감사파트너 업무부담, 감사파트너 경력, 감사파트너 교육배경, 감사품질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huiyingpiao0121@163.com, 주저자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kajeon@ss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1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15일

I. 서 론

최근 규제기관은 감사파트너가 감사업무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별 감사파트너(audit partner)의 개인적 특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¹⁾ 미국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2015a)는 28가지 감사품질 지표(Audit Quality Indicators) 중 하나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partner workload 또는 partner busyness)을 제시하면서 감사파트너가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에 개별 감사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감사품질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실무에서 감사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제한된 고급인력으로 감사파트너가 감당할 수준의 업무량을 초과하여 규제기관의 우려와 같이 감사품질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자본시장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감사업무는 사람 지향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업무부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서 감사파트너마다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이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고,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undgren and Svanstrom(2014)은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저해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는 반대로 최승욱 외(2020)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량은 감사품질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Goodwin and Wu(2016)는 감사파트너 업무부담은 감사품질과 유의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사파트너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도 자료의 한계로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Yan and Xie(2016)는 감사파트너의 성별, 산업전문성, 나이, 피감사기업의 규모 등이 감사파트너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상기 혼재된 결과와 제한적으로만 존재하는 실증연구는 자료수집이 어렵거나 수기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겨 더 완전한 자료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구체적인 교육배경으로서 감사파트너의 전공, 명문대 여부, 학력을 활용한다. 중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중국에서 감사파트너의 책임을 명확하기 위해 감사파트너가 감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감사파트너의 실명이 공시되므로 감사파트너 수준에서

1)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파트너를 ‘업무수행이사(engagement partner)’라고 부르고,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공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므로 ‘업무수행이사’라는 용어 대신에 일반적인 용어인 ‘감사파트너’라고 부르기로 한다.

업무부담을 계산할 수 있다.²⁾ 둘째, 중국의 공인회계사의 개인 인적사항은 공개되어 있어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셋째, 중국의 모든 상장기업은 12월말 결산 기업이므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시간압박 하에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킨다.

중국의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A주식(A-share)을 발행한 2,551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³⁾ 첫째, 감사파트너의 감사대상 기업 수로 추정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채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기관의 우려와 유사한 결과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파트너의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감사품질이 저해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게 되면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조절 효과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극단적이 아닌 경우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극단적이 아닌 경우 감사파트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사파트너가 회계·재무·경영관리 전공인 경우와 감사파트너가 명문대 출신인 경우 감사품질의 저해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파트너의 학력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경력과 감사파트너의 교육배경 자료가 입수가 가능한 중국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조사하지 않았던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발견한 최초의 연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규제기관에게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에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감사파트너의 경력이나 교육배경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너무 적거나 지나치게 많으면 효과가 없으며,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계법인에게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균형적으로 분포되게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결정에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제Ⅲ장은 연구모형과 표본선정을 기술한다. 제Ⅳ장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연구의 결론과 공헌점을 제시한다.

-
- 2) 중국의 감사보고서에는 최종 책임자와 현장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서명한다. 최종 책임자는 품질관리, 감사업무계획, 감사증거해석 및 감사의견 발표에서 리더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파트너(Gul et al. 2013 ; Lennox et al. 2014)이므로 본 연구는 최종 책임자에 초점을 둔다.
 - 3) A주식 상장회사(A-share listed companies)는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에 상장되어 A주 시장에서 위안화로 거래되며 중국 국내 투자자만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의 설정

1.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감사파트너는 전체 감사업무의 책임자로서 감사계약 단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Zerni 2012). 최근의 감사환경과 정책은 개별 감사파트너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학계에서도 감사파트너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DeFond and Francis 2005).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는 많지 않으며 연구결과도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 간의 음(-)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로서 Sundgren and Svanstrom(2014)은 스웨덴에서 파산을 신청한 비상장기업을 이용하여 감사파트너의 감사대상기업 수로 추정된 업무부담과 계속기업 감사의견 표명 빈도로 측정한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저해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Yan and Xie(2016)는 중국의 상장기업을 이용하여 파트너가 교체된 연도에서 감사파트너의 감사대상기업 수와 감사대상기업 총자산으로 추정된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이 하락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Gul et al.(2013)도 중국 상장기업을 이용해 감사파트너의 감사대상기업수와 감사품질이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들은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저해되는 것을 주장한다.

둘째, 최승욱 외(2020)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량이 성과대응재량적발생액, 소규모이익의 공시 및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측정한 감사품질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파트너는 자신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임을 하지 않으며 업무량은 오히려 감사파트너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석하고 있다.

셋째, Goodwin and Wu(2016)는 호주의 상장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파트너 업무부담은 감사품질과 유의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파트너는 일정 수준의 감사품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업무량을 스스로 결정하므로 업무량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로 이다혜 외(2020)도 업무수행이사의 피감사기업수로 측정한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2.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는 미국 PCAOB(2015b)에서 감사보고서에 감사파트너의 이름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자료이용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감사업무는 사람 지향 특성이 강하므로 업무부담 스트레스에 대한 감사파트너의 인식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부담에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서 파트너

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감사파트너마다 업무부담에 대처하는 전략의 효과성 정도가 다르기에 결국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게 된다. 하지만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많지 않다. 감사업무는 감사파트너의 지혜와 판단에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지혜는 감사파트너의 교육 배경과 실무경험이 결합된 공동체다. 여기서는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으로서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 및 산업전문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대하여 알아본다.

첫째,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가 있다. Cahan and Sun(2015)은 중국 상장 회사를 이용하여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Han(2017)은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감사의견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감사파트너가 경력이 많을수록 감사위험이 큰 기업에 비적정 의견을 제시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Sonu et al.(2019)은 한국기업을 이용하여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non-Big4에서만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배길수 외(2014)는 감사파트너의 경력을 회계사경력연수 및 해당 회사에 대한 계속감사연수로 구분하여 감사파트너의 회계사경력연수가 길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되지만 감사파트너의 계속감사연수는 감사품질과 체계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Sundgren and Svanstrom(2014)은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감사품질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으며, 감사파트너의 나이(age)는 감사품질과 음(-)의 관계가 존재하여 감사파트너의 경험효과(experience effect)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둘째, 감사파트너의 교육배경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가 있다. Ding et al.(2012)은 감사파트너가 회계·재무전문자인 경우 감사품질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고하였다. Gul et al.(2013)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감사파트너의 학력, 대형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험 등 인적 특성이 개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실증분석하였다. Zhang et al.(2014)은 감사파트너의 학력이 감사품질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을 제시하였고, Ye et al.(2014)은 감사파트너의 학력이 석사 이상이면 감사실패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감사파트너의 산업전문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 Chi and Chin(2011)은 중국기업을 이용하여 감사파트너의 산업전문성이 재무제표 재작성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Bell et al.(2015)은 Big4 내부에서 평가한 감사품질을 이용하여 감사파트너의 산업전문성이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Yan(2016)은 감사파트너의 산업전문경력이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Yan and Xie(2016)는 감사파트너의 산업전문성이 감사파트너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로서 최승욱 외(2014)는 감사파트너가 속한 회계법인이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 산업전문 감사파트너와 감사품질 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권수영 외(2015)는 감사파트너의 산업전문성이 있는 경우 피감사회사의 보수주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중국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 중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⁴⁾ 둘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때 감사파트너가 특정 연도에 감사한 ‘회사 수’ 외에도 ‘회사의 총자산의 합계’를 이용하였다. 셋째, 중국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입수가 어려운 교육배경(전공, 명문대 여부, 학력)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넷째, 감사파트너의 경력이나 교육배경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너무 적거나 지나치게 많으면 효과가 없으며,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중간 정도일 때 효과가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4. 연구가설의 설정

사람의 주의력은 제한되어 있고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일에 투입되는 시간을 감소시킨다(Simon 1978). 감사파트너가 제한된 감사기간 내에 동시에 여러 상장기업의 감사업무에 참여한다는 것은 각 업무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감사파트너는 심각한 시간압박에 직면하게 되며 불가피하게 불합리한 야근을 하거나 감사절차의 범위를 축소하여 감사품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면 감사품질이 저해될 것이다(Sundgren and Svanstrom 2014 ; Yan and Xie 2016 ; Gul et al. 2013).

이와는 반대로 감사파트너의 업무량이 많을수록 감사실패로 인한 잠재적 소송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감사파트너의 독립성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다(DeAngelo 1981). 감사파트너가 감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감사실패로 인해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에

4) 한국과 중국의 공인회계사 제도는 일부 차이가 있다. 첫째 시험제도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이상의 학력 또는 회계 관련 전공 중등전문학교(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인 중국 공민은 공인회계사 전국통일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회계 관련 전문고급기술직명을 지닌 자는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 감사업무에 종사하면 성·자치구·직할시 공인회계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회계법인에 취업하지만, 중국에서는 회계법인에 입사 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감사파트너의 실제 실무경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중국은 2001년부터 감사보고서에 감사파트너와 한 명의 매니저급 공인회계사가 서명·날인해야 하고 이들은 동등한 법적 책임을 진다. 중국공인회계사 감사준칙에 의하면 감사파트너는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수행을 책임지고 회계법인을 대표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서명하는 파트너를 가리킨다.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소송위험도 증가하므로 감사파트너는 독립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감사파트너는 자신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임하지 않으며 업무량은 오히려 감사파트너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주장도 있다(최승욱 외 2020).

또한 감사파트너는 회계법인의 감사체계 하에서 일정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업무량을 균형수준에서 스스로 결정하므로 업무량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한다(Goodwin and Wu 2016 ; 이다혜 외 2020).

이와 같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선행연구의 결과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 형태로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은 감사품질과 관계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으로서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을 중심으로 알아본다.⁵⁾ 감사파트너는 교육훈련이나 실무경험 및 피드백을 통해 감사 관련 지식을 습득하므로 (Moroney and Carey 2011) 경험이 풍부한 감사파트너가 더 많은 감사지식을 보유하여 업무수행 시 확고한 표준을 준수하여(Bedard 1991) 무의미한 정보의 간섭을 줄여 피감사기업의 회계부정 및 경영위험을 더 잘 식별할 수 있다. Francis and Yu(2009)에 의하면 경험이 많은 감사파트너는 고객기업에게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경험이 많은 감사파트너는 감사업무를 계획할 때 현재의 위험 요소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간압박에 의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며, 높은 독립성으로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Cahan and Sun 2015 ; Han 2017 ; Sonu et al. 2019 ; 배길수 외 2014)이 많은 반면에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감사품질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감사파트너의 나이와는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Sundgren and Svanstrom 2014)도 존재한다. 따라서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설 2는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 형태로 설정한다.

가설 2 :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사파트너의 교육배경은 지식, 위험 선호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l et al. 2013). 우선, 감사파트너의 전공이 회계·재무·경영관리이면 회계에 대한 기초지식이 탄탄하고 재무

5)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으로는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 외에도 산업전문성이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산업전문성이 있는 감사파트너는 감사품을 높인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제표에 익숙하고(Sutaryo and Lase 2015)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더 많은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회계부정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하므로 업무부담으로 인한 시간압박 스트레스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중국 정부는 “985 공정(工程)(985 project)”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총 39개 대학을 선정해 이들을 세계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막대한 재정자원을 투입했다.⁶⁾ 이 대학들의 입학 점수도 높고 학교 규모, 학교시설, 교수진, 교육의 질 등에서 일반대학보다 우월하고 학술분위기도 강하다. 따라서 명문대를 졸업한 감사파트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및 시간관리 능력이 강하고 학부에서 인턴십의 기회도 더 많아서 일반대학을 졸업한 감사파트너보다 업무부담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학력인 감사파트너는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더욱 보수적이며(Ye et al. 2014),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다중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으므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Gul et al.(2013)은 높은 학력을 가진 감사파트너는 높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취업기회가 많아서 오히려 덜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배경을 떠나 감사파트너는 이미 감사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배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감사파트너의 교육배경과 감사품질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감사파트너의 교육배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설 3은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 형태로 설정한다.

가설 3 : 감사파트너의 교육배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I. 연구모형과 표본선정

1. 연구모형

가. 감사품질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선행연구에서 자주 이용되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을 이용한다.⁷⁾ 재량적 발생액은 다

6) 중국 정부에서는 1998년 5월에 “985 공정(工程)(985 project)”을 실시하여 총 39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100여개 대학을 지원하는 “211 공정(工程)(211 project)”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211 공정에만 속한 대학은 일반대학과 너무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985 공정과 211 공정에 모두 선정된 대학들에 초점을 둔다.

7) 회계감사 연구에서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을 이용하는 연구로는 최관·박종일

음 식 (1)과 같이 Dechow et al.(1995)이 제시한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아래 식에서 i 는 기업,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TA_{it}/A_{it-1} = \beta_1(1/A_{it-1}) + \beta_2[(\Delta SALE_{it} - \Delta REC_{it})/A_{it-1}] + \beta_3(PPE/A_{it-1}) + \varepsilon_{it} \quad (1)$$

여기서,

- TA_{it} : 총 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 ;
- $\Delta SALE_{it}$: 매출액 변화분(=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 ΔREC_{it} : 매출채권 변화분(=당기말 매출채권-전기매출채권) ;
- PPE_{it} :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 ;
- A_{it-1} : 기초총자산

나. 실증분석 모형

본 연구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 1을 설정하였고,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전공, 명문대 여부 및 학력)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가설 2와 가설 3을 설정하였으며, 가설 2와 가설 3을 증명하기 위한 모형은 식(2) 및 식(3)과 같다.

$$\begin{aligned} ABSDA_{it} = & \beta_0 + \beta_1 APB1_{it} + \beta_2 SIZE_{it} + \beta_3 ROA_{it} + \beta_4 LEV_{it} + \beta_5 ACFO_{it} \\ & + \beta_6 GRWTH_{it} + \beta_7 INV_{it} + \beta_8 LOSS_{it} + \beta_9 NAVPS_{it} \\ & + \beta_{10} LSHARE_{it} + \beta_{11} VB_{it} + \beta_{12} BIG4_{it} + \Sigma YD + \Sigma ID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2)$$

$$\begin{aligned} ABSDA_{it} = & \beta_0 + \beta_1 APB1_{it} + \beta_2 EXP_{it} + \beta_3 MAJOR_{it} + \beta_4 UNI_{it} + \beta_5 EDU_{it} \\ & + \beta_6 SIZE_{it} + \beta_7 ROA_{it} + \beta_8 LEV_{it} + \beta_9 ACFO_{it} \\ & + \beta_{10} GRWTH_{it} + \beta_{11} INV_{it} + \beta_{12} LOSS_{it} + \beta_{13} NAVPS_{it} \\ & + \beta_{14} LSHARE_{it} + \beta_{15} VB_{it} + \beta_{16} BIG4_{it} + \Sigma YD + \Sigma ID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3)$$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1> 참조

식(2)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종속변수인 ABSDA는 앞서 식(1)에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DA의 절댓값이다. 관심변수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의 추정치로 감사파트너의 특정 연도 감사대상기업 수로 측정된 APB1을 이용한다.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을 저해하면 종속변수 ABSDA와 유의한 양(+)의 값이 예상된다.

식(3)은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모형이다. 관심변수는 각각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1,

(2012), 고윤성·최현정(2014), 박종일·전규안(2015), 황문호·안성희(2016) 등이 있다.

아니면 0(EXP),⁸⁾ 회계·재무·경영관리 전공이면 1, 아니면 0(MAJOR), 명문대⁹⁾ 출신이면 1, 아니면 0(UNI), 학사학위 이상이면 1, 아니면 0(EDU)이다.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면 ABSDA와 유의한 음(-)의 값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 관련 선행연구에 따라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으로 계산된 기업규모(SIZE), 총자산이익률(ROA), 부채비율(LEV), 기업의 총매출액의 성장률(GRWTH),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CFO), 재고자산회전율(INV), 순자산가치(NAVPS), 당기순손실 여부(LOSS), 대주주 지분율(LSHARE), 총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VB), Big4 여부(BIG4), 연도더미(YD), 산업더미(ID)이다.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성장률(GRW), 당기순손실 여부(LOSS)는 기업특성의 변수로 기업의 특성에 따라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Dechow et al. 1995 ; Becker et al. 1998 ; 전규안·박종일 2012).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Variable	Definition
ABSDA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 ;
APB1	감사파트너가 특정 연도에 감사한 회사 수 ;
APB2	감사파트너가 특정 연도에 감사한 회사의 총자산 합계 ;
EXP	감사경력이 20년 이상이면 1, 아니면 0 ;
EDU	학사학위 이상이면 1, 아니면 0 ;
UNI	명문대 출신이면 1, 아니면 0 ;
MAJOR	회계, 재무 및 경영관리 전공자이면 1, 아니면 0 ;
SIZE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ROA	당기순이익/총자산 ;
LEV	총부채/총자산 ;
ACFO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
GRWTH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기초총자산 ;
INV	재고자산/매출액
LOSS	당기손실 보고기업이면 1, 아니면 0 ;
NAVPS	순자산가치(=자본/보통주식수)
LSHARE	최대주주 지분율 ;
VB	시가/장부가 비율 ;
BIG4	BIG4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

8) 감사파트너가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연도로 계산한 감사파트너 경력의 중위수가 20년이므로 20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9) 중국 985 공정과 211 공정에 모두 선정된 대학이다.

2.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되어 있는 A주식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자료는 CSMAR 데이터베이스¹⁰⁾를 이용하였고, 감사파트너의 인적사항은 CSMAR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정보가 없는 자료는 중국공인회계사회(Chinese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ICPA)에서 수기로 수집하여 보충하였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1) 금융업이 아닌 기업
- (2) ST, *ST¹¹⁾가 아닌 기업
- (3) 감사파트너의 인적 자료가 수집이 가능한 기업
- (4) CSMAR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금융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양식이나 회계처리 방법 등이 일반기업과 상이하기 때문에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ST주 또는 *ST는 2년 연속 적자 종목 또는 1주당 순자산이 1위안을 밑도는 종목으로 일주가 변동폭은 상하 5%로 한정되어 일반기업과 차이가 있으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본 중 극단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제외한 연속변수들에 대하여 모두 상하위 1% 내에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¹²⁾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최종표본은 2,551 기업-연도이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표 2>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감사품질의 측정

- 10) CSMAR(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 데이터베이스는 상하이(상해)와 선전(심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현재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정보도 가장 정확한 금융경제 데이터베이스다. CSMAR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학술 논문 17,000여 편이 국내외 일류 학술지에 발표되는 등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11) 중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이름 앞에 “ST” 또는 “*ST”라는 영문 알파벳이 붙은 종목이 있는데, ST는 “Special Treatment”의 약자로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관리종목”과 유사한 주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관리종목을 표본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ST” 또는 “*ST”가 붙은 종목은 표본에서 제외한다.
- 12) 상하위 1% 표본을 제거(truncation)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실증분석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표본확보에 유리하도록 조정(winsorization)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치인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ABSDA)의 평균값은 0.076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사파트너가 특정 연도에 감사하는 기업 수(APB1)의 평균값이 3.725라는 것은 감사파트너가 특정 연도에 평균 3개~4개의 기업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최소 1개, 최대 13개의 피감사기업을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력이 20년 이상인(EXP) 감사파트너는 전체표본의 44.1%이고, 회계·재무·경영관리 전공인 감사파트너는 81.3%이고, 명문대 출신인 감사파트너는 18.3%이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감사파트너는 85.6%이다. Big4 여부는 전체표본의 8.7%에 불과하므로 한국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외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에 대한 설명은 선행연구와 비슷하므로 생략한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25%	중위수	75%	최댓값
DA	2,551	-0.002	0.109	-0.307	-0.057	-0.008	0.044	0.438
ABSDA	2,551	0.076	0.078	0.001	0.022	0.050	0.100	0.438
APB1	2,551	3.725	2.342	1	2	3	5	13
APB2	2,551	23.905	1.276	20.804	23.091	23.960	24.672	27.464
EXP	2,551	0.441	0.470	0	0	0	1	1
MAJOR	2,551	0.813	0.390	0	1	1	1	1
UNI	2,551	0.183	0.386	0	0	0	0	1
EDU	2,551	0.856	0.351	0	1	1	1	1
SIZE	2,551	22.539	1.344	20.169	21.580	22.359	23.311	27.098
ROA	2,551	0.036	0.074	-0.781	0.016	0.036	0.064	0.205
LEV	2,551	0.433	0.200	0.061	0.275	0.428	0.578	0.967
ACFO	2,551	0.144	0.768	-0.898	0.003	0.043	0.097	10.866
GRWTH	2,551	0.238	0.419	-0.641	0.035	0.161	0.341	2.912
INV	2,551	0.349	0.584	0.000	0.099	0.183	0.331	4.545
LOSS	2,551	0.082	0.274	0	0	0	0	1
NAVPS	2,551	5.259	3.476	0.231	2.970	4.418	6.437	25.625
LSHARE	2,551	0.340	0.144	0.085	0.227	0.321	0.435	0.771
VB	2,551	0.652	0.234	0.147	0.478	0.649	0.825	1.257
BIG4	2,551	0.087	0.281	0	0	0	0	1

1) 변수 설명은 <표 1> 참고.

다음으로 <표 3>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ABSDA	APB1	EXP	MAJOR	UNI	EDU	SIZE	ROA	LEV	ACFO	GRWTH	INV	LOSS	NAVPS	LSHARE	VB	BIG4
ABSDA	1																
APB1	0.067	1															
EXP	-0.054	0.114	1														
MAJOR	-0.019	0.100	0.052	1													
UNI	-0.038	-0.027	0.001	-0.160	1												
EDU	-0.008	0.085	-0.002	-0.094	0.194	1											
SIZE	-0.113	-0.181	-0.013	-0.093	0.113	0.092	1										
ROA	0.071	0.018	-0.041	0.010	0.013	0.057	0.020	1									
LEV	-0.081	-0.105	-0.016	-0.060	0.049	0.052	0.528	-0.289	1								
ACFO	-0.052	-0.061	-0.017	-0.045	0.038	0.024	0.243	0.081	0.055	1							
GRWTH	0.238	0.015	-0.006	0.021	0.001	0.017	0.038	0.175	0.012	0.006	1						
INV	0.149	-0.051	-0.016	-0.047	-0.018	-0.022	0.170	-0.122	0.242	-0.007	-0.055	1					
LOSS	-0.018	-0.005	0.017	-0.018	-0.015	-0.020	-0.077	-0.587	0.159	-0.022	-0.163	0.005	1				
NAVPS	0.033	-0.043	0.012	-0.033	0.074	0.057	0.389	0.226	0.008	0.162	0.084	0.037	-0.184	1			
LSHARE	0.020	-0.083	-0.027	-0.049	0.035	0.067	0.207	0.164	0.028	0.078	-0.012	0.033	-0.114	0.162	1		
VB	-0.096	-0.110	0.035	-0.056	0.054	0.033	0.628	-0.164	0.433	0.145	-0.003	0.174	0.023	0.290	0.127	1	
BIG4	-0.059	-0.235	-0.032	-0.202	0.248	0.111	0.405	0.050	0.144	0.163	-0.018	-0.015	-0.046	0.225	0.215	0.191	1

1) 굵은 글씨체는 10% 이상의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2) 변수 설명은 <표 1> 참고.

관심변수 APB1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감사파트너가 특정 연도에 감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을 나타낸다. 감사파트너의 경력(EXP)과 명문대 출신(UNI)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전공(MAJOR)과 학사학위 이상 여부(EDU)는 유의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단일변량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 변수 APB1을 기준으로 구분한 상·하위 25%와 중간 50% 집단 간에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하였다.¹³⁾ 이러한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한다.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APB1의 상위 25%에서 평균 0.087로 세 개의 그룹에서 제일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상위 25%에서 가장 높고 하위 25%와 중간 50%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감사파트너의 감사대상 기업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ANOVA 분석은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제외한 단변량 분석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표 4>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에 대한 단일변량분석

변 수		N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Scheffe Test
ABSDA	(a) $APB1 \leq 25\%$	944	0.071	0.074	7.89	0.000***	$a=b<c$
	(b) $25\% < APB1 \leq 75\%$	1,090	0.075	0.076			
	(c) $APB1 > 75\%$	517	0.087	0.087			

1) 변수 설명은 <표 1> 참고.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파트너의 경력 및 교육배

13) APB1을 기준으로 구분한 상·하위 25%와 중간 50% 집단으로 나눈 이유는 APB1의 하위 25%와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수가 각각 2개와 5개이므로 APB1을 기준으로 하위 25%는 1~2개 기업을 감사하는 감사파트너이고, 중간 50%는 3~5개 기업을 감사하는 감사파트너이고, 상위 25%는 6개 이상의 기업을 감사하는 감사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 1부터 가설 3을 설정하였다. <표 5>부터 <표 7>은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실증분석 결과이다. 모든 모형의 설명력은 1% 이내에서 유의적이다.¹⁴⁾

먼저, 가설 1의 회귀분석결과를 나타내는 <표 5>를 살펴보면 관심변수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의 추정치인 감사대상기업 수(APB1)는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채량적 발생액의 절댓값(ABSDA)에 대하여 유의한 양(+)의 값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하락하는 것을 설명한다.

<표 5>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ABSDA_{it} = \beta_0 + \beta_1 APB1_{it} + \beta_2 SIZE_{it} + \beta_3 ROA_{it} + \beta_4 LEV_{it} + \beta_5 ACFO_{it} + \beta_6 GRWTH_{it} + \beta_7 INV_{it} + \beta_8 LOSS_{it} + \beta_9 NAVPS_{it} + \beta_{10} LSHARE_{it} + \beta_{11} VB_{it} + \beta_{12} BIG4_{it} + YD + \varepsilon_{it} \quad (2)$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ABSDA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190***	5.39
APB1	0.001**	2.28
SIZE	-0.007***	-3.85
ROA	0.048*	1.79
LEV	-0.019*	-1.9
ACFO	-0.001	-0.34
GRWTH	0.045***	12.64
INV	0.015***	3.78
LOSS	0.022***	3.33
NAVPS	0.001**	2.44
LSHARE	0.029***	2.75
VB	-0.004	-0.4
BIG4	0.003	0.45
YD	Included	
ID	Included	
Adjusted R ²	0.136	
F-Value	14.89***	
N	2,551	

1) 변수 설명은 <표 1> 참고.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14) <표 5>부터 <표 7>의 결과에서 각 변수의 VIF값이 모두 2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량이 많으면 감사파트너가 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여 감사품질을 저해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통제변수는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예상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6>은 가설 2와 가설 3의 실증분석 결과이다.

<표 6> 감사파트너 경력과 교육배경(전공, 명문대 여부 및 학력)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ABSDA_{it} = \beta_0 + \beta_1 APB1_{it} + \beta_2 EXP_{it} + \beta_3 MAJOR_{it} + \beta_4 UNI_{it} + \beta_5 EDU_{it} + \beta_6 SIZE_{it} + \beta_7 ROA_{it} + \beta_8 LEV_{it} + \beta_9 ACFO_{it} + \beta_{10} GRWTH_{it} + \beta_{11} INV_{it} + \beta_{12} LOSS_{it} + \beta_{13} NAVPS_{it} + \beta_{14} LSHARE_{it} + \beta_{15} VB_{it} + \beta_{16} BIG4_{it} + \Sigma YD + \Sigma ID + \varepsilon_{it} \quad (3)$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ABSDA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198***	5.59
APB1	0.002***	2.65
EXP	-0.007**	-2.45
MAJOR	-0.006*	-1.65
UNI	-0.007*	-1.72
EDU	0.001	0.02
SIZE	-0.007***	-3.8
ROA	0.045*	1.69
LEV	-0.019**	-1.97
ACFO	-0.001	-0.44
GRWTH	0.045***	12.7
INV	0.015***	3.75
LOSS	0.022***	3.26
NAVPS	0.001**	2.53
LSHARE	0.028***	2.66
VB	-0.003	-0.37
BIG4	0.003	0.52
YD	Included	
ID	Included	
Adjusted R ²	0.139	
F-Value	13.47***	
N	2,551	

1) 변수 설명은 <표 1> 참고.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가설 1을 통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을 저해하는 것이 검증되었으므로 가설 2와 가설 3은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지를 분석한다. 관심변수인 감사파트너의 경력(EXP), 전공(MAJOR), 명문대 여부(UNI)는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ABSDA에 유의한 음(-)의 값을 보고하고 있고, 학력(EDU)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회계·재무·경영관리 전공이거나 명문대 출신이면 감사업무부담 증가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설명한다. 학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높은 학력을 가진 감사파트너는 높은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덜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 직관적으로 가설 2와 가설 3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표본을 감사파트너의 특정 연도 감사대상기업 수로 추정된 업무부담의 대용치인 APB1을 기준으로 세 개 그룹(상위 25%, 중간 50%, 하위 25%)으로 구분하여 감사파트너의 경력(EXP), 전공(MAJOR), 명문대 여부(UNI), 학력(EDU)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¹⁵⁾¹⁶⁾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APB1의 가운데 50%에서 관심변수인 감사파트너의 경력(EXP), 전공(MAJOR), 명문대 여부(UNI)는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ABSDA에 대해 각각 5% 유의수준과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고하고 있고, 학력(EDU)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APB1의 상·하위 25%에서는 모든 관심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러한 결과는 APB1의 하위 25%에서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크지 않기에 감사파트너의 경력 및 교육배경이 감사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가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로, APB1의 상위 25%에서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파트너가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넘어서 경력 및 교육배경의 조절효과가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APB1의 중간 50%에서는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많거나 회계, 재무 및 경영관리 전공자이거나 명문대 졸업자인 경우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회계부정 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다중작업으로 인한

15) APB1을 기준으로 세 개 그룹을 구분할 때 하위 25%는 1개 기업을 감사하는 감사파트너, 중간 50%는 2~5개 기업을 감사하는 감사파트너, 상위 25%는 6개 이상의 기업을 감사하는 감사파트너로 정의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였다.

16) <표 7>의 분석과는 달리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력(EXP)과 전공(MAJOR), 명문대 여부(UNI), 학력(EDU)에 의해 완화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부담(APB1 변수와 경력(EXP)과 전공(MAJOR), 명문대 여부(UNI), 학력(EDU)의 상호작용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각 변수의 VIF 값이 너무 커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17) 상위 25%에서 명문대 여부(UNI)는 예상과는 달리 유의수준이 10%이기는 하지만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으므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감사파트너 업무부담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분석

$ABSDA_{it} = \beta_0 + \beta_1 EXP_{it} + \beta_2 MAJOR_{it} + \beta_3 UNI_{it} + \beta_4 EDU_{it} + \beta_5 SIZE_{it} + \beta_6 ROA_{it} + \beta_7 LEV_{it} + \beta_8 ACFO_{it} + \beta_9 GRWTH_{it} + \beta_{10} INV_{it} + \beta_{11} LOSS_{it} + \beta_{12} NAVPS_{it} + \beta_{13} SHARE_{it} + \beta_{14} B_{it} + \beta_{15} BIG4_{it} + \Sigma YD + \Sigma ID + \varepsilon_{it} \tag{4}$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ABSDA					
	APB1≤25%		25%<APB1≤75%		APB1>75%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122**	2.16	0.246***	4.84	0.253***	2.61
EXP	−0.004	−0.82	−0.011**	−2.51	−0.008	−1.06
MAJOR	−0.001	−0.2	−0.014**	−2.35	0.001	0.11
UNI	−0.008	−1.25	−0.017***	−2.93	0.019*	1.84
EDU	0.004	0.73	−0.003	−0.37	−0.001	−0.07
SIZE	−0.004	−1.4	−0.008***	−3.1	−0.008*	−1.73
ROA	−0.030	−0.7	0.065*	1.7	0.097	1.25
LEV	−0.022	−1.38	0.003	0.21	−0.060**	−2.4
ACFO	−0.001	0.07	−0.003	−0.9	0.021*	1.71
GRWTH	0.040***	7.8	0.050***	8.45	0.045***	4.95
INV	0.020***	3.22	0.006	1.13	0.028**	2.22
LOSS	0.013	1.29	0.022**	2.14	0.035**	2.03
NAVPS	0.001	0.66	0.002***	3.08	0.0004	0.31
LSHARE	0.038**	2.25	0.018	1.15	0.013	0.49
VB	−0.003	−0.21	−0.011	−0.79	0.0003	−0.01
BIG4	0.004	0.52	0.001	0.09	—	
YD	Included					
ID	Included					
Adjusted R ²	0.153		0.138		0.118	
F-Value	6.31***		6.43***		3.23***	
N	944		1,090		517	

1) 변수 설명은 <표 1> 참고.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3) APB1의 상위 25%는 모두 Non-big4임.

4. 추가분석

첫 번째 추가분석으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가질 수 있는 단점으로 방향성이 고려되지 않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량적 발생액(DA)을 양(+)과 음(-)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과 <표 9>의 결과를 보면 관심변수 APB1이 재량적 발생액(DA)이 양(+)인 표본에서만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결과가 재량적 발생액이 양(+)인 경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DA가 양인 기업과 음인 기업을 구분한 분석

$DA_{it} = \beta_0 + \beta_1 APB1_{it} + \beta_2 SIZE_{it} + \beta_3 ROA_{it} + \beta_4 LEV_{it} + \beta_5 ACFO_{it} + \beta_6 GRWTH_{it} + \beta_7 INV_{it} + \beta_8 LOSS_{it} + \beta_9 NAVPS_{it} + \beta_{10} LSHARE_{it} + \beta_{11} VB_{it} + \beta_{12} BIG4_{it} + YD + \varepsilon_{i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DA			
	DA>0		DA<0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192***	3.3	-0.191***	-4.7
APB1	0.002*	1.81	-0.001	-1.35
SIZE	-0.008***	-2.91	0.006***	2.68
ROA	0.128**	2.39	-0.030	-1.35
LEV	-0.020	-1.21	0.024**	2.09
ACFO	0.000	-0.02	0.000	0.1
GRWTH	0.060***	10.96	-0.024***	-4.94
INV	0.031***	4.87	0.002	0.48
LOSS	0.015	1.19	-0.030***	-4.06
NAVPS	0.002**	2.38	0.000	-0.64
LSHARE	0.025	1.39	-0.032**	-2.49
VB	0.021	1.43	0.016	1.42
BIG4	0.002	0.15	-0.003	-0.49
YD	Included			
ID	Included			
Adjusted R ²	0.169		0.122	
F-Value	9.14***		7.64***	
N	1,160		1,391	

1) 변수 설명은 <표 1> 참고.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표 9〉 DA가 양인 기업과 음인 기업을 구분한 분석

$$DA_{it} = \beta_0 + \beta_1 APB1_{it} + \beta_2 EXP_{it} + \beta_3 MAJOR_{it} + \beta_4 UNI_{it} + \beta_5 EDU_{it} + \beta_6 SIZE_{it} + \beta_7 ROA_{it} + \beta_8 LEV_{it} + \beta_9 ACFO_{it} + \beta_{10} GRWTH_{it} + \beta_{11} INV_{it} + \beta_{12} LOSS_{it} + \beta_{13} NAVPS_{it} + \beta_{14} LSHARE_{it} + \beta_{15} VB_{it} + \beta_{16} BIG4_{it} + \Sigma YD + \Sigma ID + \varepsilon_{i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DA			
	DA>0		DA<0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199***	3.38	-0.196***	-4.57
APB1	0.002*	1.91	-0.001	-1.64
MAJOR	-0.005	-0.86	0.006	1.23
UNI	-0.012*	-1.82	0.001	0.29
EDU	0.001	0.15	0.003	0.57
EXP	-0.001	-0.3	0.003	0.97
SIZE	-0.008***	-2.91	0.006***	2.61
ROA	0.126**	2.35	-0.038	-1.34
LEV	-0.020	-1.24	0.024**	2.08
ACFO	0.000	-0.02	0.000	0.13
GRWTH	0.059***	10.91	-0.024***	-4.95
INV	0.031***	4.85	0.003	0.52
LOSS	0.014	1.13	-0.030***	-4.08
NAVPS	0.002**	2.42	0.000	-0.65
LSHARE	0.022	1.25	-0.032**	-2.54
VB	0.021	1.45	0.016	1.43
BIG4	0.004	0.39	-0.003	-0.37
YD	Included			
ID	Included			
Adjusted R ²	0.169		0.121	
F-Value	8.16***		6.79***	
N	1,160		1,391	

1) 변수 설명은 <표 1> 참고.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두 번째 추가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용했던 감사파트너가 특정 연도에 감사한 기업들의 총자산으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을 추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0>에서 관심변수인 APB2의 계수값을 보면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ABSDA)과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많은수록 감사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앞서 APB1을 이용한 검증한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표 11>의 결과를 보면 감사파트너의 전공(MAJOR)은 비유의적으로 나왔으나 경력(EXP)과 명문대 여부(UNI)는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므로 앞서 APB1을 이용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감사대상기업의 총자산으로 측정한 감사업무부담(APB2)과 감사품질의 관계

$ABSDA_{it} = \beta_0 + \beta_1 APB2_{it} + \beta_2 SIZE_{it} + \beta_3 ROA_{it} + \beta_4 LEV_{it} + \beta_5 ACFO_{it} + \beta_6 GRWTH_{it} + \beta_7 INV_{it} + \beta_8 LOSS_{it} + \beta_9 NAVPS_{it} + \beta_{10} LSHARE_{it} + \beta_{11} VB_{it} + \beta_{12} BIG4_{it} + YD + \varepsilon_{i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ABSDA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148***	3.76
APB2	0.004***	3.03
SIZE	-0.009***	-4.79
ROA	0.047*	1.76
LEV	-0.019*	-1.95
ACFO	-0.001	-0.41
GRWTH	0.046***	12.71
INV	0.015***	3.77
LOSS	0.022***	3.3
NAVPS	0.001**	2.34
LSHARE	0.028***	2.61
VB	-0.003	-0.35
BIG4	0.001	0.15
YD	Included	
ID	Included	
Adjusted R ²	0.138	
F-Value	15.05***	
N	2,551	

- 1) APB2는 파트너가 특정 연도에 감사대상기업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2) 변수 설명은 <표 1> 참고.
-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표 11〉 감사파트너 경력과 교육배경(전공, 명문대 여부, 학력)

$ABSDA_{it} = \beta_0 + \beta_1 APB2_{it} + \beta_2 EXP_{it} + \beta_3 MAJOR_{it} + \beta_4 UNI_{it} + \beta_5 EDU_{it} + \beta_6 SIZE_{it} + \beta_7 ROA_{it} + \beta_8 LEV_{it} + \beta_9 ACFO_{it} + \beta_{10} GRWTH_{it} + \beta_{11} INV_{it} + \beta_{12} LOSS_{it} + \beta_{13} NAVPS_{it} + \beta_{14} LSHARE_{it} + \beta_{15} VB_{it} + \beta_{16} BIG4_{it} + \Sigma YD + \Sigma ID + \varepsilon_{i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ABSDA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151***	3.84
APB2	0.005***	3.35
EXP	-0.007**	-2.51
MAJOR	-0.006	-1.54
UNI	-0.007*	-1.84
EDU	0.0003	-0.08
SIZE	-0.009***	-4.9
ROA	0.044*	1.66
LEV	-0.020**	-2.02
ACFO	-0.001	-0.44
GRWTH	0.046***	12.78
INV	0.015***	3.74
LOSS	0.021***	3.23
NAVPS	0.001**	2.43
LSHARE	0.027***	2.5
VB	-0.003	-0.31
BIG4	0.001	0.13
YD	Included	
ID	Included	
Adjusted R ²	0.140	
F-Value	13.62***	
N	2,551	

1) 변수 설명은 <표 1> 참고.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V. 결 론

국내 상장기업들은 2018 회계연도부터 감사보고서에 감사파트너(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하고 있다. 이것은 감독당국과 투자자들이 감사파트너가 감사업무 전반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에 관심을 보인 것을 반영한다.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 중 학계와 실무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의 하나가 바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입수의 한계로 인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을 연구한 논문은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대한 조절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더욱 희소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에 대한 공개자료 수집이 가능한 중국 자료를 이용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증하고,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전공, 명문대 여부, 학력)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파트너의 특정 연도 감사대상기업 수로 추정한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많을수록 감사파트너가 감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감사품질이 저해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게 되면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조절 효과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극단적이 아닌 경우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감사파트너의 경력이 20년을 넘으면 감사전문 지식이 축적되어 감사업무에 대한 확고한 표준이 있어 회계부정 및 기타 위험 요소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에 시간압박이나 업무부담이 큰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극단적이 아닌 경우 감사파트너의 좋은 교육배경은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음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사파트너가 회계·재무·경영관리 전공인 경우와 감사파트너가 명문대 출신인 경우 감사품질의 저해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파트너의 학력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학력을 가진 감사파트너는 높은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덜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조사하지 않았던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이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발견한 최초의 연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규제기관에게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에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감사파트너의 경력이나 교육배경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너무 적거나 지나치게 많으면 효과가 없으며,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중간 정도일 때 효과가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계법인에게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균형적으로 분포되게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결정에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자료수집의 한계상 감사파트너의 감사대상회사 중 비상장기업이 제외되어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의 추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중국은 공인회계사가 아니어도 감사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감사파트너의 경력을 정확하게 수집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지만 생략된 변수(omitted variable)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윤성 · 최현정. 2014. “감사인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의 재고찰”.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2호 : 143-177.
- 권수영 · 정문기 · 황유선. 2015. “감사파트너 산업전문성과 보수주의”. *회계저널* 제24권 제3호 : 143-183.
- 박종일 · 전규안. 2015. “감사 전(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의무화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 135-172.
- 배길수 · 최승욱 · 이재은. 2014. “감사파트너 경험에 따른 감사시간 ·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의 차이”. *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 175-235.
- 이다혜 · 박은영 · 양종익. 2020 “회계법인 감사 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에 대한 고찰”. *회계저널* 제29권 제3호 : 233-263.
- 전규안 · 박종일. 2012. “감사품질이 분기별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9-51.
- 최 관 · 박종일. 2012.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315-356.
- 최승욱 · 배길수 · 이재은. 2020. “파트너 업무량과 감사품질 및 직급시간 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45권 제3호 : 35-61.
- 최승욱 · 이재은 · 배길수. 2014. “감사파트너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 *회계학연구* 제39권 제6호 : 101-138.
- 황문호 · 안성희. 2016.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하에서의 회계법인 선택요인과 감사품질”.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 61-87.
- Becker, C., M. DeFond, J. Jia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Spring) : 1-24.
- Bedard, J., and A. M. Wright. 1994. The Functionality of Decision Heuristics : Reliance on Prior Audit Adjustments in Evidential Planning.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6 : 62-89.
- Bell, T. B., M. Causholli and W. R. Knechel. 2015. Audit Firm Tenure, Non-audit Services, and Internal Assessments of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3 (3) : 461-509.
- Cahan, S. F., and J. Sun. 2015. The Effect of Audit Experience on Audit Fees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30 (1) : 78-100.
- Chi, H.Y., and C. L. Chin. 2011. Firm versus Partner Measures of Auditor Industry Expertise and Effects on Auditor Quality.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0 (2) : 201-229.

- DeAngelo, L. E. 1981. Auditor Independence, ‘Low 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2) : 113–127.
- Dechow, P. M., R. G. Sloan, and A.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2) : 193–225.
- DeFond, M. L. and J. R. Francis. 2005. Audit Research After Sarbanes–Oxley.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4 (s–1) : 5–30.
- Ding, L., M. H. Li, and L. W. 2012. Individual Auditor’s Characteristics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Shanxi Finance and Economics University* 34 (8) : 108–116.
- Francis, J. R., and M. D. Yu. 2009. Big4 Office Size and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4 (5) : 1521–1552.
- Goodwin, J. and D. Wu. 2016.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Partner Busyness and Audit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3 (1) : 341–377.
- Gul, F. A., D. Wu, and Z. Yang. 2013. Do Individual Auditors Affect Audit Quality? Evidence from Archival Data. *The Accounting Review* 88 (6) : 1993–2023.
- Han, W. F. 2017. Audit Risk, Auditor’s Experience and Audit Quality. *Audit & Economy Research* 32 (03) : 35–45.
- Lennox, C., X. Wu, and T. Zhang, 2014. Does Mandatory rotation of Audit Partners Improve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9 (5) : 1775–1803.
- Moroney, R., and P. Carey. 2011. Industry–versus Task–based Experience and Auditor Performance.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0 (2) : 1–18.
-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 2015a. Concept Release on Audit Quality Indicators. PCAOB Release No. 2015–005. Washington D.C.
-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 2015b.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Audits : Rules To Require Disclosure of Certain Audit Participants on a New PCAOB Form and Related Amendments to Auditing Standards. PCAOB Release No. 2015–008. Washington D.C.
- Simon, H. A. 1978. Rationality as Process and as Product of Though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78 : 1–16.
- Sonu, C. H., A. Choi, J. Lee, and W. Ha. 2019. Audit Partner’s Length of Audit Experience and Audit Quality : Evidence from Korean.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26 (3) : 261–280.
- Sundgren, S. and T. Svanstrom. 2014. Auditor–in–charge Characteristics and Going Concern Reporting.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1 (2) : 531–550.
- Sutaryo, S., and Y. Lase. 2016. Auditors Characteristics and Audit Delay : Evidence from Indonesian Regional Governance.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13 (1) : 66–73.

- Yan, H. M. 2016. How does Auditor's Individual Experience Affect Audit Quality? Empirical Evidence from Chinese Stock Market. *Audit & Economy Research* 2016 (03) : 41–52.
- Yan, H., and S. Xie, 2016. How Does Auditors' Work Stress Affect Audit Quality? Empirical Evidence from Chinese Stock Market. *China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9(4) : 305–319.
- Ye, K., Y. Cheng, and J. Gao. 2014. How Individual Auditor Characteristics Impact the Likelihood of Audit Failure : Evidence from China.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0 (2) : 394–401.
- Zhang, Z. G., W. R. Wu, and X. Q. Chen. 2014. Study on the Impact of Sign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Background Characteristics upon Audit Quality—Evidence from Chinese Listed Companies. *China Soft Science* 2014 (11) : 95–104.
- Zerni, M. 2012. Audit Partner Specialization and Audit Fees : Some Evidence from Swede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9 (1) : 312–340.

The Effect of Audit Partner Busyness on Audit Quality : Based on Chinese Audit Partners' Experience and Educational Background

Huiying Piao* · Kyu An Jeon**

〈Abstract〉

Regulators and investors have recognized that individual audit partners play a central role in providing credible financial statements and have shown extensive attention to individual audit partners' characteristics. PCAOB expressed a long-held concern that audit partner busyness could decrease the audit quality, and careful monitoring is necessar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partner busyness and audit quality, and the impact of individual audit partners' characteristics on this relationship is still a priori because of data limit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partner busyness(APB) on audit quality and whether there are systematic differences in this relationship depending on individual audit partners' experience and educational background (major, prestigious university, academic qualifications).

Using a sample of A-share listed companies in the Chinese stock market from 2017 to 2018, we find that there is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PB, measured as the number of clients of an audit partner, and audit quality, measured as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consistent with regulators' concerns that APB dissipates audit effort and thus, compromises audit quality. We also find that experience and educational background have no control effect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PB and audit quality when APB is too low or too high. However, audit partners' experience and educational background ease the negative effect of APB on audit quality if APB is not extreme. Specifically, audit partners majoring in accounting, financial management, business management, and audit partners from the prestigious university could ease audit quality deterioration due to APB. On the other hand, audit partners' academic qualifications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Our findings contribute to policy implications for regulators. Our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accounting firm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audit partner busyness and that it needs to reasonably allocate human resources to ensure that the distribution of audit partners' work is appropriate to improve audit quality.

〈Key words〉 Audit Partner Busyness, Experience, Education, Audit Quality

* Ph. 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huiyingpiao0121@163.com,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kajeon@ssu.ac.kr, Corresponding Author